

##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

이 상 록<sup>+</sup>

(전북대학교)

백 학 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요 약]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빈곤, 수도권과 지방, 지역 불균형 발전, 빈곤의 지역 격차, Oaxaca 분해

\* 본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7-B00412).

\*\* 본 논문은 제1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2008. 9. 26)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좋은 의견을 주신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 1. 서론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정책적 현안으로 주목되면서, 빈곤의 규모와 추세, 빈곤의 양상, 빈곤층의 특성, 빈곤대책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김교성, 2007).<sup>1)</sup> 다양한 관점과 주제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던 그간의 빈곤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빈곤의 양상과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산출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 개선과 새로운 정책 방안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곧, 다양한 관점과 초점,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그간의 빈곤 연구들을 통해, 빈곤의 규모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빈곤층의 특성은 어떠한지, 빈곤의 진출입 양상은 어떠하며, 빈곤 진출입에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빈곤주기와 빈곤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존재와 노인, 편부모, 아동 등의 특정 인구집단의 빈곤 실태와 특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상대적 빈곤 및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을 활용하여 신빈곤 양상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빈곤 연구들은 빈곤에 대한 분석적 접근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로는, 분석 대상 및 분석의 차원과 관련하여, 그간의 빈곤 연구들은 대체로 빈곤층 개인 및 가족을 단위로 빈곤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에 한정되어 있음이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된다. 물론, 빈곤은 빈곤층의 개인 및 가족 특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빈곤이라는 특성을 지닌다(Beeghley,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빈곤 연구들에서의 분석적 접근은 주로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빈곤의 특성과 양상,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을 취하였을 뿐, 지역사회, 국가사회 등의 단위에서의 빈곤의 양상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극히 미약하였다. 이 점에서 분석적 접근에의 제한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곧 사회적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빈곤 발생과 재생산의 사회 구조적 토대와 맥락의 규명에는 연구 관심과 노력이 제대로 경주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기존 연구가 일정 정도의 편향성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된다.

둘째로는, 기존 빈곤 연구들은 대체로 “빈곤의 양상과 원인”을 “개인 혹은 가족 특성”의 측면에서

1) 관련 빈곤 연구들은 크게 ① 빈곤 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김미곤, 2000; 김미곤, 여유진, 양시현 등, 1999; 홍경준, 2005), ② 개별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빈곤수준, 소득수준의 변화, 그리고 이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구인회, 2005;2004;2002, 여유진, 김미곤 외, 2005; 김교성·반정호, 2004; 김진욱, 2004; 홍경준, 2004; 김교성, 2002;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유경준, 2003; 금재호·김승택, 2001; 안종범·김철희·전승훈, 2001; 정진호, 2001), ③ 하위집단 빈곤에 관한 연구로, 빈곤노인(박능후·송미영, 2006; 홍백의, 2005; 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김태완, 2000), 빈곤아동(류연규·최현수, 2003), 근로빈곤층(김교성·최영, 2006; 금재호, 2006; 김영란, 2005; 노대명·최승아 외, 2004; 이태진·이상은 외, 2004) 연구, ④ 소득이전의 빈곤 효과 분석(손병돈, 1999; 석재은·김태완, 2000; 김교성, 2002)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 바라보고, 그에 대한 분석에 치중된 경향 역시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된다. 서구 국가들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빈곤 이론에서는, 빈곤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수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지만, 이들 요인들을 대별하면 크게 “자원의 결핍(resource deficiency)”, “개인적 속성의 결여(individual deficiency)”, “제도적 측면의 결핍(institutional deficiency)”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다(Rein, 1970; Katz, 1989). 이와 같이 빈곤을 규정하는 세 측면들에 비추어 보면, 국내 빈곤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의) 자원 결핍” 혹은 “개인적 속성의 결여” 등에 초점을 두고서 주로 빈곤의 추이와 양상,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제도 및 사회구조 혹은 사회 환경”의 측면에 주목하여 빈곤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극히 미약하였다는 점에서, 그간의 빈곤연구 성과는 제한적이라 평가된다.<sup>2)</sup> 일례로, 한 사회의 빈곤 양상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체계 변동,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정책 환경 및 행정체계 특성, 지역사회 특성(neighborhood effect)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측면 혹은 사회 환경 등이 밀접하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빈곤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둔 빈곤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사회구조 및 사회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둔 빈곤 연구가 미흡한 데에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적합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한 점이 주된 이유라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빈곤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나 고려가 미흡한 채 기존의 미시적 데이터의 활용에만 급급하여 빈곤연구가 수행된 점 역시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도권과 지방)을 분석단위로 “빈곤의 지역간 편차, 곧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양상과 특성의 차이”를 실증, 분석함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구조적 특성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간 빈곤 편차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곧,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한국사회의 주된 특성이 지역별 빈곤 분포 및 빈곤 양상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쳐, 빈곤의 지역간 편차가 구조화되고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는 가설적 인식에 입각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편차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 혹은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과 지역 빈곤의 관련성”,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사회구조적 주된 특성의 하나인 ‘지역 불균형 발전’과 지역간 빈곤 편차의 관련성”을 제기함과 함께 지역별로 차별화된 빈곤대책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성 혹은 사회구조적 문제의 하나는 “지역발전의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사회의 경제사회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및 비대칭적 성장에 토대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인구, 경제, 교육, 문화가

2) 유럽 국가들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들을 토대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을 바라보려는 일부 연구들의 시도는, “빈곤의 양상과 원인이 주로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의 맥락에서만 모색될 뿐, 사회구조적 맥락이 간과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연구 동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감안하면 빈곤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배제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론적 논의에만 주로 치중되어 있고, 이론적 논의에 상응하는 분석적 도구(tool)의 미비로 빈곤 분석의 실제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곧 지역발전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양상이 구조화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생활여건과 삶의 질의 지역간 불평등을 의미하기에 주목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변동의 영향 혹은 정부정책 효과에서 지역간 편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토대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례로, 구조조정 이후 노동시장 변화 양상에 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간 고용격차 및 일자리 창출의 격차가 현저하여, 지역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분절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흥미롭다(전병유, 2003, 2006; 정인수, 2003). 이는 지역 불균형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변화 또한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그리고 이에 따라 빈곤층의 취업기회 및 임금수준 또한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이들 연구에 비추어 보면, “경제위기 이후 빈곤 추세 역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매개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이하게 전개됨”이, 그리고 “빈곤의 규모 및 양상, 특성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이 추정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실태와 빈곤결정에의 지역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검증하고, 이를 통해 “빈곤 양상 및 빈곤결정이 지역 특성에 의해 주요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빈곤이 지역발전의 불균형 구조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면서 재생산되고 있음을” 제기함으로써, 미시적 관점의 기존 빈곤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차별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빈곤정책의 개발” 혹은 “지역별 빈곤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 정책이 적극 개선되고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감소의 성과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어서 빈곤정책의 효과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비추어(구인회, 2004), 본 연구는 “빈곤정책의 효과성 미흡이 빈곤 양상 및 구조의 지역 편차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지역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선행 연구 검토

미국의 빈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환경 및 특성을 중심으로 빈곤문제를 바라보려는 관점이 일찍부터 자리하여 왔다.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빈곤연구가 두드러진 데에는 무엇보다도 대도시 중심부 슬럼(slum)을 중심으로 빈곤이 집중되는 지리적 편중 현상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Tickamyer and Duncan, 1990). 빈곤의 지속과 세대간 이전에 의거한 빈곤의 재생산이 단순히 인적자본 결여 등의 개인적 특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빈곤지역의 문화와 규범의 학습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음을 제기하는 “빈곤문화론(poverty culture)” 및 “하위소외집단(underclass)이론”,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가설” 등은 지역을 초점으로 빈곤을 바라보려는 관점에 입각한 이론적 성과라 할 수 있다 (Spencer, 2004).

한편, 지역적인 관점의 빈곤연구들은 초기에는 대체로 대도시의 계도지역의 흑인을 중심으로 한 빈곤 현상을 이해함에 연구 관심이 집중되고, 분석방법 또한 지역연구 형태로의 빈곤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에 의존된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도시 빈곤(urban poverty)보다 농촌 빈곤(rural poverty) 및 비도시 지역(Non-Metropolitan area)의 빈곤이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지역간 빈곤 격차가 장기간 온존, 심화되는 양상”이 주목되면서, 농촌 빈곤 및 빈곤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Levernier and White, 1998; Levernier, et. al. 2000; Levernier, 2003; Fisher, 2007; Nord, 1998). 관련 연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지역 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상당 수 연구들에서는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간 빈곤 격차와 지역 효과(rural effect)를 검증하거나, 농촌 및 비도시 지역의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계량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Triest, 1997; Levernier, et. al., 2002; Weber and Jensen, 2004; Blank, 2005; Weber, et. al. 2005; Fisher, 2007).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에서의 지역과 빈곤의 관련성, 특히 빈곤의 지역 편차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Tickamyer and Duncan, 1990; Weber and Jensen, 2004). 첫째, 지역 특성(도시와 농촌, 도심지와 비도심지)에 따라 빈곤을 분포가 상이함이, 특히 농촌 및 비도시 지역에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특정 권역(미국 남부의 Black Belt 및 미시시피 Delta 권역, 애팔래치아 산맥 권역, 리오그란데 벨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곤이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빈곤의 지역별 편포성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간 빈곤 격차에는 지역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person's specific features)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place features) - 경제수준,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 요인들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지역에 따라 곧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 빈곤층 구성 및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농촌 빈곤층은 주로 백인, 노령자(노인), 부모 중 한사람이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양부모 가구라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도시 빈곤층은 주로 흑인, 아동 및 여성, 여성 가구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빈곤층 구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지역 효과(rural effect)가 대체로 검증되어, 거주 지역의 특성이 개인 및 가구의 빈곤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에서는 “빈곤의 지역적 분포 및 빈곤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연구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산출, 축적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국내 빈곤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지역을 고려한 빈곤 연구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지역의 빈곤 실태를 분석하는 지역연구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 일례로 도시빈민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의 빈곤실태 연구, 농촌 빈곤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지역 특성과 빈곤의 일반적 관련성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한 형편이다. 최근까지도 데이터 미비라는 기술적 측면 및 ‘지역 갈등의 고조’라는 정치적 측면 등을 이유로, 지역별로 빈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지역간 빈곤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조차 정확하게 파

악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위기 전후로 빈곤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들의 산출로 빈곤 연구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체로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함에 연구 관심이 집중될 뿐이어서, 지역을 단위로 빈곤 실태와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빈곤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순일 외(1994), 배진한(1998), 이은우(1996), 송영남(2007)의 연구 등을 손꼽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들 연구는 광역 행정구역 혹은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을 지역 단위로 삼아, 지역별 빈곤 분포와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비교 기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의 지역별 분포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들 연구는 일련의 의의를 지니지만, 송영남(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식화된 최저생계비가 부재한 관계로, 추정 최저생계비 혹은 생활보조대상 선정기준 등을 빈곤선으로 활용하였기에, 그리고 또한 경제위기 이전의 시점에서의 분석결과들이기에, 현재의 지역별 빈곤 분포의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들 연구들에서의 분석단위로 설정한 지역은 지역 규모(광역시부/일반시부/군부) 혹은 행정구역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어서, 분석 결과의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가 미약한 점 역시 한계라 평가된다.

한편, 이현주 외(2006) 및 백학영(2007)의 최근 연구는 시군구의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추정) 지역 빈곤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요인들을 분석하여 주목된다. 곧 이들 연구는 단순한 지역별 빈곤 실태 분석의 차원을 벗어나 지역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진보된 연구시도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지니나, 지역 빈곤율 추정의 편의성과 이론적 근거와 함의가 미흡한 지역 단위의 설정 등에서 기존 연구와 함께 공히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지역별 격차의 양상과 특성을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지역 구조의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의 지역 불평등 문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혹은 ‘도시와 농촌’ 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원으로 적극 표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는 상이한 초점에서 한국사회의 지역간 빈곤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곧,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한국사회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빈곤의 지역간 격차라는 측면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도 빈곤 양상이 단순히 개인 및 가구 특성 요인 뿐 아니라 지역 특성 및 지역 구조에 의해 주요하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빈곤대책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3. 분석 방법

#### 1) 분석자료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200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가 충분하게 표집된 데이터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 판단되었다. 전국 단위의 표집이기에 세부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기에는 지역별 사례 수가 충분치 않아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 비교 분석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는 6,580가구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6,504가구의 자료를 기본적인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분석방법

##### (1) 주요 변수들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구분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그 외 나머지 지역을 지방으로 정의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보다 세분화된 비교분석을 위해 지방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지방의 광역시는 지방 대도시로, 시는 지방 중소도시로, 군 지역은 지방 군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빈곤 측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은 가구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기준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소득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서의 경상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합산된 것이며, 소득 자료에서 (-) 소득은 소득이 없는 상태(0)로 처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지역간 빈곤 격차 분석에는 절대 빈곤 및 상대 빈곤의 개념이 동원되었는데, 절대 빈곤의 측정에는 당해 년도, 곧 2006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였다. 절대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질 경우 절대 빈곤 개념에 입각한 빈곤가구, 절대 빈곤선 이상의 소득의 가구를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상대 빈곤의 측정과 관련하여 상대적 빈곤선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중위소득 50% 또는 중위소득의 60%로 정의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 입각한 빈곤가구로,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비빈곤 가구로 처리하였다.

빈곤 측정 단위는 일차적으로 가구와 개인을 기준하였다. 빈곤 측정의 단위는 개인(person), 가족(family), 가구(household) 등이 상정되는데, 개인의 소비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빈곤 측정의 단위는 가구로 상징함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역간 빈곤 격차를 다 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의 빈곤 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빈곤 역시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 단위의 빈곤 측정은 빈곤 가구에 속한 개인은 빈곤자로, 비빈곤 가구에 속한 개인은 비빈곤자로 처리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지역간 빈곤 격차를 가구 단위 빈곤 측정에 따른 분석에서는 가구 데이터의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개인 단위 빈곤 측정에 따른 분석에서는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구 규모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지역간 빈곤수준의 격차 및 빈곤층의 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기술통계분석,  $X^2$  검증, t 검증 등을 실행하고, 빈곤 결정에 있어서의 수도권/지방의 지역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빈곤 격차에 지역 효과의 정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빈곤을 격차분해 방법을 활용하였다.

빈곤을 격차분해 분석에는 Yun(2004)의 비선형 모형(non-linear model)의 격차분해 방법을 참조, 활용하였는데, Yun(2004)은 Oaxaca 임금격차 분해 방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비선형 모형으로 빈곤을 격차 분석 모형을 아래 식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sup>

$$\overline{P_A} - \overline{P_B} = \{ \overline{[\Phi(X_A \beta_B)]} - \overline{[\Phi(X_B \beta_B)]} \} + \{ \overline{[\Phi(X_A \beta_A)]} - \overline{[\Phi(X_A \beta_B)]} \}$$

위 식에서  $(\overline{P_A} - \overline{P_B})$ 은 A지역(지방)과 B지역(수도권)간 빈곤율 격차의 총량을 의미하며, 이는 특성 효과(characteristics effect)에서 기인된 격차와 계수 효과(coefficient effect)에서 비롯된 격차로 구분된다.

$\{ \overline{[\Phi(X_A \beta_B)]} - \overline{[\Phi(X_B \beta_B)]} \}$ 는 특성 효과에서 기인된 지역간 빈곤율 격차로, 이는 지역간 개인 또는 가구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빈곤 격차를 의미한다. 특성 효과에서 비롯한 격차는 B지역(수도권)에서 추정된 회귀방정식 계수값( $\tilde{\beta}_B$ )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A지역(지방)과 B지역(수도권)에 속한 가구들의 속성의 평균값( $X_A$ 와  $X_B$ ) 차이에 따른 격차로 측정된다.

3) 가구의 빈곤확률(poverty incidence)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된다. 먼저, 빈곤선(Z)에 대한 경상소득(Y) 비율( $R=Y/Z$ )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방정식( $\ln R = X\beta + e$ )을 구축한다. 이때 X는 가구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가구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이고,  $\beta$ 는 추정계수, e는 오차항이다. 다음으로  $\Pr(e < -X\beta) = \Phi(X\tilde{\beta})$ 을 이용하여 가구 빈곤확률을 계산한다.  $\Phi(\cdot)$ 는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stan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tilde{\beta} = -\beta/\sigma$ 이며,  $\sigma$ 은 오차항(e)의 표준편차이다. 만약  $X\beta$ 의 값이 크거나  $X\tilde{\beta}$ 의 값이 작다면 빈곤선 대비 가구소득 비율은 증가하고, 따라서 빈곤에 빠질 확률은 작아지게 된다.



한편,  $\{[\overline{\Phi(X_A \widetilde{\beta}_A)}] - [\overline{\Phi(X_A \widetilde{\beta}_B)}]\}$ 는 계수 효과에서 기인된 지역간 빈곤율 격차로, 개인 및 가구 특성에 의해 발생된 격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수 효과는 동일한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른 데서 발생된 빈곤율 격차를 포착하는 부분이다. 이는 A지역(지방)에 속한 가구 속성의 평균값( $X_A$ )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A지역(지방)과 B지역(수도권)을 대상으로 각각 추정된 회귀식의 계수값( $\widetilde{\beta}_A$ 와  $\widetilde{\beta}_B$ )의 차이에 따른 빈곤율의 격차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계수 효과는 가구주 및 가구 특성 등에 의한 빈곤율 격차의 나머지 부분으로, 거주 지역의 영향에서 비롯된 격차로 간주된다. 분석에서의 계수 효과에서 비롯한 빈곤율 격차 측정치는 지역 특성에 의거한 격차의 최대치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수도권/지방의 지역 효과는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이 주지될 필요가 있다.

## 4. 분석 결과 :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

### 1) 빈곤 수준에서의 지역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수준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 등 다양한 빈곤 지수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빈곤수준에서의 격차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분석결과와는 아래 <표 1>과 같다. 분석결과에서는 절대 빈곤율 뿐 아니라 상대 빈곤율 모두에서 지방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현저한 빈곤 수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최저생계비 100%(PL 100%)를 기준한 절대 빈곤율의 경우, 수도권의 빈곤율은 7.56% 지방의 빈곤율은 13.26%로, 지방에서의 빈곤율이 수도권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최저생계비 50%를 기준한 절대빈곤율, 곧 극빈층 비율에서도 수도권은 1.25% 지방은 2.18%로,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빈곤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을 포괄한 빈곤선을 적용한 경우에서도(PL 120%, PL 150%), 지방의 빈곤율은 수도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지방 빈곤이 더욱 심각함을 확인된다.

한편, 지방에서의 상대적으로 심각한 빈곤 양상은 상대 빈곤에 입각한 측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중위소득 50%를 기준한 상대빈곤율의 경우, 수도권 16.26% 지방 25.16%로, 중위소득 60%를 기준한 상대빈곤율의 경우에는 수도권 21.73% 지방 30.85%로, 지방에서 각각 8.9% 포인트와 9.12%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의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지역구분 2)에서는, 수도권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지방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지방 군 지역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4) 인천과 경기도의 군 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의 절대빈곤율(PL 100%)은 7.38%,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은 16.04%로 분석되어, 지방과의 빈곤율 격차가 더욱 증가한다.

지역발전 격차와 동일한 양상으로 지역 빈곤을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특히, 지방 군 지역의 빈곤율은 지방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 빈곤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가 지방 군 지역에서의 현저히 높은 빈곤율 분포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표 1> 수도권과 지방의 가구 빈곤율 분포(2006년)

(단위 : %, 만원)

구분	전체 (n=6,504)	지역 구분 1			지역 구분 2							
		수도권 (n=3,111)	지방 (n=3,393)	지역 격차	수도권 (n=3,111)	지방 대도시 (n=1,296)	지방 중소도시 (n=1,558)	지방 군지역 (n=539)	지역 격차 (1)	지역 격차 (2)	지역 격차 (3)	
절대 빈곤율	PL 50%	1.75	1.25	2.18	-0.93	1.25	1.70	2.44	2.78	-0.44	-1.19	-1.53
	PL 100%	10.53	7.56	13.26	-5.71	7.56	10.57	12.26	22.63	-3.01	-4.70	-15.08
	PL 120%	16.39	12.44	20.01	-7.57	12.44	17.44	17.97	31.10	-4.99	-5.53	-19.65
	PL 150%	24.14	19.74	28.18	-8.44	19.74	26.16	24.58	43.41	-6.42	-4.85	-23.68
상대 빈곤율	중위 50%	20.91	16.26	25.16	-8.90	16.26	22.90	21.57	40.89	-6.63	-5.30	-24.63
	중위 60%	26.49	21.73	30.85	-9.12	21.73	29.17	26.19	48.33	-7.44	-4.46	-26.60
빈곤갭(PL 100%)		.2849	.2809	.2869	-.0060	.2809	.2742	.3144	.2606	.0088	-.0335	.0203
빈곤갭(중위 50%)		.2934	.2783	.3023	-.0239	.2783	.2721	.3247	.3087	.0062	-.0463	-.0304
월 평균 가구 소득	전체	294.73	303.13	287.03	16.10	303.13	288.50	315.21	201.97	14.63	-12.07	101.16
	절대빈곤층 (PL 100%)	51.08	52.31	50.43	1.88	52.31	52.41	50.81	47.61	-1.10	1.50	4.70
	상대빈곤층 (중위 50%)	65.35	66.46	64.70	1.786	66.46	67.99	64.44	60.65	-1.54	2.02	5.81

※ 빈곤갭 = (빈곤선-가구소득)/빈곤선      지역격차(1) :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차이  
 지역격차(2) :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차이      지역격차(3) : 수도권과 지방군지역 차이

빈곤 갭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살펴보면, 빈곤율 분포와 동일하게 지방에서의 빈곤 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빈곤층에 비해 지방 빈곤층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의 지역 구분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의 빈곤갭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빈곤갭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갭 격차는 지방 중소도시와의 격차에 주로 의거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지방 군 지역의 빈곤 갭은 상대 빈곤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절대 빈곤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나 흥미로운데, 이는 빈곤층 소득분포 양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곧, 절대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수도권의 경우는 52.31만원, 지방 군 지역은 47.61만원으로 지방 군 지역이 낮지만, 표준편차는 수도권 28.96만원, 지방 군 지역이 22.72만원으로 소득분포의 편차는 수도권에서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소득분포의 편차가 그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된다. 이는 지방 군 지역 절대 빈곤층의 소득분포는 평균치를 중심으로 밀집되게 분포한 반면, 수도권 절대 빈곤층의 소득분포는 빈곤선 주변과 밑바닥에 주로 분포하여, 지방 군 지역의 빈곤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 <표 2>는 개인 빈곤율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역간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 양상은 가구를 기준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곧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에 빈곤이 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율 격차는 가구를 기준한 경우에 비해 다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서 기인된 것이라 보인다(<표 4> 참조).

<표 2> 수도권과 지방의 개인 빈곤율 분포(2006년)

(단위 : %, 만원)

구분		전체 (n=19,075)	지역 구분 1			지역 구분 2						
			수도권 (n=9,127)	지방 (n=9,948)	지역 격차	수도권 (n=9,127)	지방 대도시 (n=3,836)	지방 중소도시 (n=4,698)	지방 군지역 (n=1,414)	지역 격차 (1)	지역 격차 (2)	지역 격차 (3)
절대 빈곤율	PL 50%	1.32	1.00	1.62	-0.62	1.00	1.20	1.81	2.05	-2.0	-8.1	-10.5
	PL 100%	7.71	5.71	9.54	-3.83	5.71	7.72	9.07	16.05	-2.01	-3.36	-10.35
	PL 120%	12.57	9.65	15.24	-5.59	9.65	13.79	13.79	23.97	-4.14	-4.14	-14.32
	PL 150%	19.47	16.26	22.42	-6.16	16.26	21.14	19.84	34.42	-4.88	-3.58	-18.16
상대 빈곤율	중위 50%	14.73	11.47	17.71	-6.24	11.47	16.24	15.56	28.78	-4.77	-4.09	-17.31
	중위 60%	19.94	16.48	23.12	-6.64	22.24	22.24	19.97	36.00	-5.76	-3.49	-19.52
빈곤갭(PL 100%)		.2864	.2872	.2860	.0012	.2872	.2698	.3077	.2666	.0174	-.0205	.0207
빈곤갭(중위 50%)		.2665	.2571	.2720	-.0149	.2571	.2418	.2902	.2856	.0153	-.0331	-.0285
월평균 가구 소득	전체	340.55	342.14	339.10	3.05	342.14	334.75	366.83	258.75	7.39	-24.69	83.38
	절대빈곤층 (PL 100%)	62.31	63.57	61.62	1.94	63.57	63.70	62.83	56.64	-1.3	.73	6.92
	상대빈곤층 (중위 50%)	77.98	78.84	77.47	1.37	78.84	81.21	77.99	70.81	-2.37	.85	8.03

※ 빈곤갭 = (빈곤선-가구소득)/빈곤선      지역격차(1) :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차이  
 지역격차(2) :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차이      지역격차(3) : 수도권과 지방군지역 차이

## 2) 빈곤 구성에서의 지역 격차

앞 절에서는 빈곤의 규모라는 총량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후속하여 본 절에서는 빈곤의 양상 및 빈곤층의 특성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아래 <표 3>은 빈곤 구성에서의 지역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빈곤율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절대 빈곤율 뿐 아니라 상대 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빈곤율을 기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빈곤율 분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지방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 여성 가구주 가구가 수도권 여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에 더욱 높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표 3> 빈곤 구성의 지역 편차 : 가구주 및 가구 특성별 빈곤율 분포의 비교

(단위 : %)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		절대 빈곤(PL 100%)			상대 빈곤(중위소득 50%)		
		전체	수도권	지방	전체	수도권	지방
성별	남성	7.8	6.0	9.5	14.8	11.5	17.9
	여성	22.4	14.4	29.3	47.6	37.8	56.1
연령	30대이하	2.5	1.9	3.0	5.4	4.3	6.5
	40대	6.0	4.7	7.3	11.4	9.8	13.0
	50대	7.9	6.9	8.8	15.3	10.3	19.5
	60대이상	23.8	17.0	29.3	47.5	39.2	54.1
학력	중졸(퇴)이하	23.2	17.4	27.5	46.0	38.5	51.4
	고졸(퇴)	5.5	4.2	6.9	11.6	9.4	13.8
	대졸(퇴)이상	3.3	3.0	3.6	6.0	5.2	6.8
혼인 상태	미혼	5.5	3.9	8.0	12.6	10.5	15.8
	기혼	7.8	5.7	9.7	14.3	10.8	17.5
	이혼/사별	24.1	18.2	28.9	51.8	44.0	57.9
가구 형태	한부모가구	11.4	12.7	10.4	26.6	28.8	24.7
	노인가구	28.1	21.4	32.9	55.1	48.3	60.0
	일반가구	5.7	4.2	7.1	11.4	8.5	14.1
가구원 수	1명	22.8	16.3	28.4	50.0	40.6	58.2
	2명	16.9	11.5	21.7	30.7	23.3	37.6
	3명	5.5	3.7	7.3	12.2	8.6	15.7
	4명	4.2	3.7	4.7	7.2	6.1	8.2
	5명이상	5.2	4.2	6.0	8.8	7.3	10.2
가구주 취업여부	미취업	33.8	26.7	39.3	61.7	58.2	64.4
	취업	5.1	4.1	6.0	12.4	8.8	16.1
가구주 취업형태	상용임금	.6	.5	.8	2.0	1.2	2.8
	임시일용임금	8.8	6.7	11.2	21.5	16.2	28.1
	고용주	4.0	5.9	2.2	5.9	6.9	5.0
	자영업	10.5	6.4	12.9	21.8	12.4	27.4
	실업·비경활	28.5	21.4	34.7	52.8	46.3	58.5
취업 가구원수	0명	33.8	26.7	39.3	61.7	58.2	64.4
	1명	5.1	4.1	6.0	12.4	8.8	16.1
	2명	5.7	3.2	8.0	11.4	6.5	15.9
	3명이상	1.3	.8	1.7	2.8	2.6	3.0
취업 가구원 있음	없음	33.8	26.7	39.3	61.7	58.2	64.4
	있음	5.0	3.5	6.5	11.3	7.4	14.9

\* 기혼 : 별거포함, 임시일용임금 : 자활공공근로포함, 미취업 : 실업, 비경제활동

연령별 빈곤율 분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60대 이상일 경우에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음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확인되었지만, 지방에서의 이들 가구(60대 이상 가구주)의

빈곤율이 12% 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빈곤 또한 지방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별 빈곤율 분포에서도, 전체적으로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 발생이 높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중졸(퇴) 이하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지방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 가구주 학력을 기준 한 빈곤 구성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따른 빈곤율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미혼 및 기혼에 비해 이혼/사별 등의 경우가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지방에서 해체 가구의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혼인상태에 따른 빈곤 구성 역시 지역간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형태에서도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지방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 동일한 노인가구라 할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이들 가구의 빈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 규모에 따른 빈곤 분포에서도 지역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빈곤율의 경우 수도권(16.3%, 11.5%)에 비해 지방(28.4%, 21.7%)이 현저히 높음이 확인되고 있다.

가구주 취업상태에 따른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미취업의 경우에 빈곤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미취업과 빈곤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취업 빈곤율도 지방이 13%포인트 정도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에서 미취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한편,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빈곤율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데, 임시일용직, 자영업, 실업 등의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은 지방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나 흥미롭다. 또한, 가구내 취업자 수 및 취업가구원 보유 여부에 따른 빈곤율 분포에서도, 취업가구원을 보유한 경우일수록 그리고 취업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있음이 나타났지만, 취업 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빈곤율에서도 상당한 지역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지역(수도권/지방) 효과를 시사하여 준다.

이상에서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빈곤율 분포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보유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현저한 빈곤발생률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빈곤 위험성이 높은 가구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할지라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거주한 경우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지방의 지역 구조가 단순한 빈곤 총량의 지역 격차 뿐 아니라 빈곤 구성에서의 지역 편차를 야기함에 있어서도 주요한 토대로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sup>5)</sup>

한편,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층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5)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빈곤율 분포의 지역간 격차”는 지역 특성의 영향이기 보다는 두 지역의 전체 인구 특성 분포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체 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본문 <표 4>)는 교육년수를 제외하곤 여타 특성들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차이는 거의 없음이 확인되어, 빈곤율 분포의 지역간 차이가 특성 분포의 차이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오히려 지역 효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다.

<표 4> 전체 인구 및 빈곤층(절대빈곤) 특성의 지역간 편차 분석

(단위 : %, 가구)

		전체 가구				빈곤 가구			
		수도권 (n=3,166)	지방 (n=3,413)	전체 (n=6,580)	$\chi^2/T$	수도권 (n=236)	지방 (n=450)	전체 (n=686)	$\chi^2/T$
성별	남성	81.8	81.0	81.4	.095	65.5	57.9	60.5	3.794
	여성	18.2	19.0	18.6		34.5	42.1	3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30대 이하	30.5	27.7	29.0	1.857	7.7	6.2	6.7	3.979
	40대	26.2	23.8	25.0		16.6	13.1	14.3	
	50대	15.6	17.2	16.4		14.0	11.4	12.3	
	60대 이상	27.7	31.3	29.6		61.7	69.3	6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평균)	49.4	50.9	50.2	-1.303	62.6	64.2	63.7	-1.357
학력	중졸이하	28.8	36.1	32.6	4.329	66.1	74.7	71.8	7.047*
	고졸	35.7	32.4	34.0		19.9	16.9	17.9	
	대졸이상	35.5	31.5	33.4		14.0	8.4	1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년수(평균)	11.5	10.7	11.1	2.602**	8.1	6.6	7.1
혼인 상태	미혼	9.5	6.1	7.7	3.338	5.1	3.6	4.1	1.000
	기혼	73.9	74.8	74.4		55.1	54.9	55.0	
	사별이혼	16.6	19.1	17.9		39.8	41.6	4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 형태	한부모	1.9	2.0	1.9	2.427	3.0	1.6	2.0	3.217
	노인	18.8	23.6	21.3		52.5	58.4	56.4	
	일반	79.3	74.4	76.8		44.5	40.0	4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수(평균)	2.9	2.9	2.9	.141	2.2	2.1	2.1	1.131
가구주 취업 여부	미취업	29.4	34.9	32.3	1.392	72.9	77.9	76.1	1.776
	취업	70.6	65.1	67.7		27.1	22.1	2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취업 형태	상용임금	42.5	38.6	40.5	8.246+	3.0	2.2	2.5	16.593**
	임시일용임금	15.3	11.4	13.3		13.6	9.6	10.9	
	고용주	4.4	3.9	4.1		3.4	0.7	1.6	
	자영업	13.1	20.1	16.7		11.0	19.6	16.6	
	실업/비경활	24.7	26.0	25.4		69.1	68.0	6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 가구원	없음	17.5	20.7	19.1	1.136	61.7	61.1	61.3	.023
	있음	82.5	79.3	80.9		90.0	38.9	3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자 수(평균)	1.34	1.29	1.31	2.771	0.5	0.6	0.6	-1.172

+ <math>p < .1</math>, \* <math>p < .05</math>, \*\* <math>p < .01</math>, \*\*\* <math>p < .001</math>

※ 기혼 : 별거포함, 임시일용임금 : 자활공공근로포함, 미취업 : 실업, 비경제활동

분석결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층 특성에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성별 구성, 연령별 구성, 혼인상태 구성, 가족형태 구성, 취업가구원 보유 등에서 미미한 차이가 있

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검증되어, 빈곤층 구성에서의 지역간 차이는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단지, 빈곤층의 학력 및 취업형태에 있어서는 지역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졸(퇴) 이하의 저학력 빈곤층 및 자영업 빈곤층의 비중이 지방에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빈곤 결정에서의 지역 효과 분석

앞서의 분석결과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빈곤율 분포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빈곤 결정에 수도권/지방의 지역 효과를 검증하고, 격차 분해 모델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지역 효과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1) 빈곤 결정에 지역 효과는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의 빈곤결정에 수도권/지방의 지역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및 가구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지역 특성(수도권/지방)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짓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절대빈곤(PL 100%)과 상대빈곤(중위소득 50%)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두 모델에서 변수들의 영향은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변수들의 영향은 대체로 빈곤 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일치되는 양상을 보였다. 곧,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 자영업, 실업인 경우일수록, 취업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 확률이 높음이 분석결과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수도권/지방의 지역 변수는 여타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빈곤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결정에 지역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수도권 거주를 기준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일수록 빈곤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 지방 거주시 빈곤할 가능성이 수도권에 비해 약 1.6배( $e^{-.460}=1.584$ ) 더 높은 것으로 - 분석되어, 빈곤 결정에 있어서도 지방 거주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나 주목된다. 빈곤 결정에 지방의 부정적 영향은 지역 불균형 발전에 따른 고용기회 및 임금수준의 편차 등이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에의 적극적인 빈곤 대책의 모색에 있어 이와 같은 지역간 빈곤격차의 현실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빈곤 결정 양상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각각에서 빈곤 결정에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는데(<부표 1> 참조), 빈곤 결정에 관련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빈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지방에서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역으로 수도권에서는 교육 수준의 빈곤 감소 효과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동일할지라도 수도권에 거주할 때에 지방에 거주할 때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둘째,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에도 빈곤 가능성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높게 나타난 점 역시 주목되는 분석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이는 근로 빈곤(work but poor)의 양상이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실업 및 비경제활동계층의 빈곤 확률도 지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데, 이는 가구소득원 구성, 특히 비근로소득에서의 지역 편차를 시사하여 준다.

<표 5> 빈곤 결정에의 지역 효과 분석(가구 기준)<sup>6)</sup>

변수	절대 빈곤(PL 100%)			상대 빈곤(중위소득 50%)		
	B	S.E.	Exp(B)	B	S.E.	Exp(B)
성(기준: 여성)	.027	.159	1.027	-.214	.131	.807
연령	.011*	.005	1.011	.018***	.004	1.018
교육수준	-.122***	.013	.885	-.154***	.012	.857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111	.266	.895	-.227	.207	.797
이혼·사별	-.294	.263	.745	-.115	.205	.892
가구원수	.092	.058	1.096	-.031	.048	.970
취업형태(기준: 상용임금)						
임시일용	2.319***	.279	10.168	1.991***	.169	7.325
고용주	1.907***	.399	6.732	.974**	.325	2.649
자영업	2.467***	.274	11.785	1.991***	.169	7.326
실업·비경활	2.807***	.275	16.554	2.321***	.170	10.184
취업가구원수	-.631***	.073	.532	-.680***	.058	.507
지역(기준: 수도권)	.460***	.096	1.584	.469***	.082	1.598
상수	-3.513***	.447	.030	-1.485***	.335	.226
Model $X^2$	1174.449***			2504.555***		
Nagelkerke $R^2$	.343			.509		

\* p <.05, \*\* p <.01, \*\*\* p <.001

(2)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지역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앞서의 분석결과들을 수도권과 지방에 상당한 빈곤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빈곤 결정에 개인 및 가구 특성 요인 뿐 아니라 수도권/지방의 지역 특성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는 지역 특성의 효과에서 기인되는 격차 뿐 아니라 지역간 인구학적 특성 분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격차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격차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6) 개인을 기준으로 한 빈곤 결정에서의 지역효과는 <부표 2>를 참조.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지역 효과가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 6>은 Oaxaca 임금격차 분해방법을 비선형 모형에 적용한 Yun(2004)의 모형에 근거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해한 결과(가구기준과 개인기준)이다. <표 6>에서 a, b, c는 각각 수도권의 빈곤율, 지방의 빈곤율, 그리고 지역 거주자의 특성 차이가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 곧 지방 거주자의 특성을 가지고 수도권의 빈곤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 - 지방 빈곤율을 산출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의 분해에는 로짓 모형에 의해 예측된 빈곤율이 활용되는데, 이에 의거한 (가구 기준) 절대 빈곤율은 수도권 7.88%, 지방 13.69%로, 두 지역간에는 5.81% 포인트의 빈곤율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7)</sup>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 차이가 없음을 가정할 때, 즉 수도권에서 추정된 회귀방정식을 지방에 적용할 경우, 지방 빈곤율은 9.71%로 낮아진다.

<표 6>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율 격차 분해결과(1)(준거집단 : 수도권)

(단위 : %)

분해 항목	가구 기준		개인 기준	
	절대 빈곤 (PL 100%)	상대 빈곤 (중위 50%)	절대 빈곤 (PL 100%)	상대 빈곤 (중위 50%)
수도권의 빈곤율 (a)	7.88	16.91	5.97	11.97
지방의 빈곤율 (b)	13.69	25.91	9.85	18.32
지방의 빈곤율(지역 차이가 없을 경우) (c)	9.71	20.75	6.99	14.09
수도권- 지방 빈곤율 격차 (b-a)	5.81 (100.0)	9.00 (100.0)	3.88 (100.0)	6.35 (100.0)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의한 빈곤율 격차 (c-a)	1.83 (31.5)	3.84 (42.7)	1.02 (26.3)	2.12 (33.4)
빈곤율 격차의 잔차(지역 차이의 최대치) (b-c)	3.98 (68.5)	5.16 (57.3)	2.86 (73.7)	4.23 (66.6)

절대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기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율 격차는 5.81% 포인트로, Oaxaca 격차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해한 결과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 차이에 의해 발생한 빈곤율 격차는 1.83% 포인트, 계수 효과에 의한 차이가 3.98%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율 격차에서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이 31.5%를 설명하고, 나머지 68.5%는 계수 효과, 곧 지역 특성 차이에 의한 격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지역 효과에 의거한 빈곤율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한편, 상대 빈곤율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 빈곤에 대한 함수식을 적용하여(<부표 1>), 산출된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 빈곤율은 각각 16.91%, 25.91%로 분석되었고, 지역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지방 빈곤율은 20.75%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치를 기초로, 상대빈곤율에

7) <표 6>에서의 가구기준 수도권 빈곤율 7.88%, 지방의 빈곤율 13.69%는 회귀방정식에 의거하여 예측된 빈곤율로, 앞서 <표 1>에서의 실제 빈곤율 - 수도권 7.56%, 지방 13.26% - 과는 차이를 지닌다. 이는 빈곤 가능성(log-odds)과 빈곤 확률간 비선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서의 지역 격차를 분해한 결과,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의한 부분은 42.7%로 나타났고, 나머지 57.3%는 계수 효과 곧 지역 특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대 빈곤율에서 지역 효과의 최대 설명량이 68.5%임에 비해, 상대 빈곤율에서 지역 효과의 최대 설명량은 57.3%로 나타나, 지역 효과의 영향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상대 빈곤율 격차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지역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의 강력한 영향을 시사하여 준다.

앞서와는 달리, 개인을 단위로 하는 지역간 빈곤율 격차의 분해 결과에서는,<sup>8)</sup> 수도권과 지방의 총 빈곤 격차(6.69%) 중 지역 효과(계수 효과)에 의거하여 설명되는 격차는 절대 빈곤율의 경우는 73.7%, 상대 빈곤율의 경우는 66.6%로 나타나, 개인 단위의 빈곤에서의 지역간 격차에 지역 특성의 영향이 더욱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한편, Oaxaca 격차분해와 관련하여 준거집단에 따라 특성효과와 계수효과가 가변적일 수 있는 점(parameterization problem)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Yun, 2004; 강병구·성효용·윤명수, 2008; 김용성, 2007). 이에 따르면, 지방을 준거집단으로 할 경우와 수도권을 준거집단으로 할 경우에 따라, 빈곤율 지역 격차가 달리 분해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준거집단에 따른 분해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만, 신뢰할만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9)</sup>

이와 같은 분석방법 상의 논란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준거집단을 달리하여, 격차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의 <표 6>은 수도권을 준거집단으로 한 결과인 반면, <표 7>은 지방을 준거집단으로 한 격차 분해 결과이다.

<표 7>에서 a, b, c는 각각 지방의 빈곤율, 수도권 빈곤율, 그리고 지역특성 차이가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의 수도권 빈곤율을 산출한 것이다. 분석결과에서는 가구 단위 절대 빈곤의 52.3%(상대빈곤의 49.2%), 개인 단위 절대빈곤의 57.5%(상대빈곤의 58.6%)가 지역 효과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도권을 준거집단으로 한 경우 지역 효과의 영향이 57.3~73.7%임에 비해(<표 6>), 지방을 준거집단으로 할 경우 지역 효과는 8.1~15.1% 포인트 정도 감소한 49.2~58.6%로 추정된다. 준거집단을 달리할 때, 지역효과가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50%이상이 지역 효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공히 확인할 수 있어, 준거집단을 달리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차이, 곧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주요하게 관련됨을 제기하여 주는 바이다.

8) 개인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격차 분해에 이용한 회귀방정식은 <부표 2>와 <부표 3>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가구를 기준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다.

9) 분석결과와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는데, 지방 또는 수도권의 빈곤함수로부터 추정되는 모수의 가중 평균값을 통해 지역과 관계없는 전체 빈곤함수로 일반화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가중값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Cotton, 1998; Kunze, 2001; 김용성, 2007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병구 외(2008)와 김용성(2007)을 참조하시오.

&lt;표 7&gt;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율 격차 분해 결과(2) (준거집단 : 지방)

(단위 : %)

	가구 기준		개인 기준	
	절대 빈곤 (PL 100%)	상대 빈곤 (중위 50%)	절대 빈곤 (PL 100%)	상대 빈곤 (중위 50%)
지방의 빈곤율 (a)	13.69	25.91	9.85	18.32
수도권의 빈곤율 (b)	7.88	16.91	5.97	11.97
수도권의 빈곤율(지역 차이가 없을 경우) (c)	10.92	21.34	8.20	15.69
지방-수도권 빈곤율 격차 (b-a)	5.81 (100.0)	9.00 (100.0)	3.88 (100.0)	6.35 (100.0)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의한 빈곤율 격차 (c-a)	2.77(47.7)	4.57(50.8)	1.65(42.5)	2.63(41.4)
빈곤율 격차의 잔차(지역 차이의 최대치) (b-c)	3.04(52.3)	4.43(49.2)	2.23(57.5)	3.72(58.6)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의 빈곤 결정에는 개인 및 가족 특성 요인 뿐 아니라 거주 지역(수도권과 지방)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을 이해함에 있어 지역 효과에 대한 주목 역시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지역간 빈곤 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지역 불균형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동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는 바이다.

## 5. 결론 :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빈곤이 빈곤층의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되는 사회 현상임에 주목하여, 지역을 초점으로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과 특성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곧,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지역구조와 관련한 두드러진 특성임에 주목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빈곤의 지역적 분포’ 혹은 ‘지역간 빈곤 격차’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적 인식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지역(수도권/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조사(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수준 격차를 분석한 결과,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의 측면에서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단위의 절대 빈곤율(PL 100%)의 경우, 수도권 7.56%, 지방 13.26%로, 지방의 빈곤율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단위의 절대 빈곤율(PL 100%)에서도 수도권 5.71%, 지방 9.54%로, 수도권과 지방의 현저한 빈곤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대 빈곤율 역시 절대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빈곤이 지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 구분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빈곤수준의 지역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가, 또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의 군 지역에서의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 수준이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모두에서, 또한 가구 빈곤 뿐 아니라 개인 빈곤 모두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빈곤의 지역적 분포가 지역 불균형 발전 구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본 연구의 가설적 인식을 지지하는 결과라 평가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별로 빈곤 구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빈곤율, 노인(60대 이상) 빈곤율, 저학력 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사별 등에의 빈곤율이, 가족형태에서는 노인가구 빈곤율이, 가구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가구원 수 1~2명의 소규모 가구의 빈곤율이 수도권 비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주 취업상태를 기준한 경우도, 가구주가 미취업한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지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또한 가구 내 취업자가 전무한 경우도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지역별 빈곤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고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이라 할지라도 거주 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넷째, 빈곤층의 구성에서는 가구주의 학력과 취업형태를 제외하고 대체로 지역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층 특성에 별다른 편차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지방에서는 중졸 이하 저학력 빈곤층 및 자영업 빈곤층의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빈곤결정에 거주 지역의 효과를 로짓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에 빠질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가구라 할지라도 수도권에 아닌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에 빠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빈곤에 빠질 확률에 거주 지역(수도권/지방)이 미치는 영향을 Oaxaca 격차분해 방법(준거집단: 수도권)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간 빈곤 격차의 상당 부분이 지역 특성 차이에 의거하여 발생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의 격차 분해에 있어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다양한 제반 요인 변수들이 투입되지 않은 관계로, 지역 효과가 다소 과대 추정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빈곤 결정에 있어 수도권/지방 거주 여부의 주요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분석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기하여 준다.

첫째로, 지역별 빈곤 분포 및 빈곤 양상이 상이할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이 빈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빈곤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 대책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지방에서의 현저히 높은 빈곤율 및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지역간 빈곤발생 확률의 편차 등은, 지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빈곤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빈곤정책에서 지역 측

면에 대한 고려는 단지 지역별로 분포하는 절대 빈곤층의 수(數)만이 기계적으로 반영될 뿐이고, 지역적인 상황과 특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재한 형편이다. 개인 및 가구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 등이 빈곤 결정 및 빈곤의 양상에 적극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상(people) 중심의 접근 뿐 아니라 지역(place) 중심의 접근에 의거하여 다각도로 빈곤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Blank, 2005).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지역 중심적 접근의 대책 모색과 관련하여 각별하게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에 입각한 지방에 대한 보상적 차별이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로,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빈곤 구조와 빈곤의 양상이 지역적으로 상이함에 비추어 본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화된 빈곤 대책은 효과적,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부조제도 등의 빈곤 대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방분권(devolution)의 도입, 추진 역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분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지역의 경제적 상황 등을 역차별적으로 반영하는 재정지원 방식이 수반될 경우 이와 같은 역효과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방분권화가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 차별화된 정책 추진에의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전체의 빈곤문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적 및 행정적 역량이 미흡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간 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빈곤대책의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이 보다 낫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이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해 주요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사회구조적 맥락의 차원에서 빈곤 분석의 유용성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다. 곧, 빈곤이 빈곤층의 개인 및 가족 특성 및 상황에 의해서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되는 사회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빈곤연구는 대체로 미시적 관점에 의거한 접근에만 국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범위적 혹은 거시적 접근의 유용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이와 같은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의의가 상정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강병구·성효용·윤명수. 2008.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24(1): 73-93.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구인회. 2004.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의 빈곤 추이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57-78.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금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 김교성. 2007.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김용성. 2007.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박순일 외.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연구보고서 94-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진한. 1998. “빈곤의 지역적 구조”. 『경제논집』 14: 65-90.
- 백학영. 200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송영남. 2007.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 17-38.
- 이은우. 1996.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지역간 비교 분석”. 『경제발전연구』 2: 319-339.
-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 2006. 『우리나라의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2006-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세훈. 2006. “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 과정”. 『경제와 사회』 71: 179-207.
-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68: 205-235.
- 전병유. 2003.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사회경제평론』 21: 326-368.
- 정인수. 2003. “지역별 실업 탈출 확률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1): 111-151.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Beeghly, L. 1988. “Individual and Structural Explanations of Pover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7(3): 201-222.
- Blank, R. M. 2005. “Poverty, policy, and place: How poverty and policies to alleviate poverty are shaped by local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8: 441-464.
- Brown, D. and M. Warner. 1991. “Persistent Low-Income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Some Conceptual Challenges for Development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19(2): 22-41.
- Cotter, D.A. 2002. “Poor People in Poor Places : Lo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Household Poverty.” *Rural Sociology* 67(4): 534-555.
- Cotton, J. 1988.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1-2): 236-243.
- Duncan, C.M. 1999. *Worlds apart: Why Poverty persists in the Rural America*. Yale University Press.
- Fisher, M. 2007. “Why is U.S. Poverty Higher in Non-Metropolitan than in Metropolitan Areas?” *Growth and Change* 38(1): 56-76.
- Fitchen, J. M. 1995. “Spatial Redistribution of Poverty through Migration of Poor People to Depressed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60(2): 181-201.
- Katz, M. 1989. *The Understanding Poor*. New-York : Pantheon Books.
- Kunze, A. 2000. The Determination of Wages and the Gender Wage Gap: A Survey. IZA Discussion Paper, no. 193.
- Levernier, W. and J. B. White. 1998. “The Determinants of Poverty in Georgia’s Plantation Belt: Explaining the Difference in Measured Poverty Rat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7(1): 47-70.
- Levernier, W., M. D. Partridge, and D. S. Rickman. 2002. “The Causes of Regional Variations in U. S. Poverty: A Cross-County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0(3): 473-497.
- Levernier, W. 2003. “An Analysis of Poverty in the American South: How are Metropolitan Areas different from Non-Metropolitan Area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1(3): 372-382

- Madden, J. F. 1996.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overty Across and Within the US Metropolitan Areas, 1979-1989." *Urban Studies* 33: 1581-1600.
- Madden, J. F. 2003. "Has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Poverty among Suburbs of Large US Metropolitan Areas Changed Over Time?" *Regional Science* 82: 249-275.
- Nord, M. 1998. "Poor People on the Move: County-to-County Migration and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Pover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8(2): 329-351.
- Raudenbush, S. and Bryk, A.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ein, M. 1970. *Social Policy*. New-York : Random House.
- Rural Sociological Society Task Force on Persistent Rural Poverty. 1993. *Persistent Poverty in Rural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ress.
- Partridge, M. D. and D. S. Rickman. 2005. "High-Poverty Non-metropolitan Counties in America: Can Economic Development Help?"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8(4): 415-440.
- Spencer, J. 2004. "People, Places, and Policy : A Political Relevant Framework for Efforts to Reduce Concentrated Poverty." *The Policy Studies Journal* 32(4): 545-568.
- Tickamyer, A. R. and C. M. Duncan. 1990. "Poverty and Opportunity Structure in Rural America."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67-86.
- Triest, R. 1997. "Regional Differences in the Family Poverty."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an/Feb: 3-17.
- Ulimwengu, M. and S. Kraybill. 2004. "Poverty over Time and Location: An Examination of Metro-Non-metro Differenc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8(5): 1282-1288.
- Wilson, W.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ber, B. and L. Jensen. 2004. *Poverty and Place : A Critical Review of Rural Poverty Literature*. RPRC(Rural Povert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04-03.
- Weber, B., L. Jensen, K. Miller, J. Mosely, and M. Fisher. 2005. "A Critical Review of Rural Poverty Literature : Is there truly a Rural Effect?"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8: 381-414.
- Yun, Myeong-Su. 2004. "Decomposition Differences in the First Moment." *Economics Letters* 82(2): 273-278.

## Regional Variations of Poverty in Korea\*

—How are Capital and Metropolitan Area Different from Non-Capital and Non-Metropolitan Area?—

Lee, Sang-R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aek, Hak-Young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effects on the poverty status of households and the poverty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in Korea.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as used for the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of Non-metropolitan area is higher than Metropolitan area, and the poverty rate of small-sized regions is the highest area among Non-metropolitan areas. It shows that the poverty of regions is deep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 Second, the people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 have experienced more hardships than the people of Metropolitan area, even though they have simila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implies that living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s to have much more risk of poverty. Third, the regional effects on the poverty are found, that i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overty probability. Lastly, regional effect, that is the differences of the poverty probability between Metro and Non-metropolitan areas, is estimated as 49.2~73.7% of total poverty differenc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gional poverty policies are necessary to solv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poverty in Korea.

Key words: poverty,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poverty difference among regions, Oaxaca decomposition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KRF-2007-327-B00412)



&lt;부표 1&gt;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함수 추정 결과(가구기준)

변 수	절대 빈곤(PL 100%)				상대 빈곤(중위소득 50%)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B	S.E.	B	S.E.	B	S.E.	B	S.E.
성(기준: 여성)	.396	.246	-.271	.209	-.175	.195	-.276	.177
연령	.011	.008	.010	.006	.017**	.006	.016**	.005
교육수준	-.107***	.021	-.131***	.017	-.146***	.018	-.160***	.016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246	.402	-.012	.358	-.446	.297	-.030	.293
이혼·사별	.008	.396	-.519	.358	-.183	.290	-.028	.292
가구원수	.165	.094	.053	.074	.081	.075	-.104	.063
취업형태(기준: 상용임금)								
임시일용	2.371***	.437	2.274***	.363	2.189***	.284	1.907***	.214
고용주	2.521***	.542	1.075	.670	1.843***	.431	.032	.568
자영업	2.490***	.449	2.417***	.349	2.191***	.301	1.818***	.206
실업·비경황	2.766***	.440	2.854***	.354	2.676***	.288	2.105***	.214
취업가구원수	-.774***	.125	-.546***	.092	-.853***	.093	-.570***	.076
상수	-4.003***	.696	-2.643***	.574	-1.812***	.514	-.739	.438
Model $X^2$	410.019***		723.834***		1050.084***		1402.966***	
Nagelkerke $R^2$	.302		.361		.496		.511	

\* p &lt;.05, \*\* p &lt;.01, \*\*\* p &lt;.001

&lt;부표 2&gt; 빈곤 결정에의 지역 효과 분석(개인기준)

변 수	절대 빈곤(PL 100%)		상대 빈곤(중위소득 50%)	
	B	S.E.	B	S.E.
성(기준: 여성)	-.116	.117	-.427***	.094
연령	.005	.003	.009***	.003
교육수준	-.121***	.009	-.151***	.008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40	.200	-.134	.150
이혼·사별	-.216	.206	-.214	.155
가구원수	.111***	.033	-.005	.027
취업형태(기준: 상용임금)				
임시일용	2.271***	.153	2.072***	.099
고용주	1.959***	.205	1.172***	.168
자영업	2.446***	.149	2.111***	.098
실업·비경황	2.881***	.152	2.552***	.101
취업가구원수	-.661***	.041	-.684***	.033
지역(기준: 수도권)	.425***	.063	.458***	.052
상수	-3.212***	.305	-1.154***	.231
Model $X^2$	2628.148***		5253.832***	
Nagelkerke $R^2$	.313		.434	

\* p &lt;.05, \*\* p &lt;.01, \*\*\* p &lt;.001

<부표 3>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함수 추정 결과(개인기준)

변 수	절대 빈곤(PL 100%)				상대 빈곤(중위소득 50%)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B	S.E.	B	S.E.	B	S.E.	B	S.E.
성(기준: 여성)	.216	.187	-.389*	.152	-.454***	.141	-.453***	.125
연령	.006	.005	.003	.004	.010**	.004	.007*	.003
교육수준	-.094***	.014	-.137***	.012	-.143***	.012	-.155***	.010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45	.297	.082	.274	-.370+	.208	.114	.220
이혼·사별	.086	.305	-.461	.283	-.422*	.215	.014	.228
가구원수	.186***	.054	.075	.042	.091*	.043	-.066	.036
취업형태(기준: 상용임금)								
임시일용	2.217***	.240	2.302***	.199	2.165***	.164	2.036***	.126
고용주	2.670***	.275	.866*	.375	2.103***	.221	-.009	.322
자영업	2.374***	.245	2.444***	.191	2.240***	.172	2.000***	.121
실업·비경황	2.909***	.239	2.908***	.197	2.798***	.167	2.419***	.128
취업가구원수	-.772***	.068	-.595***	.053	-.824***	.052	-.589***	.043
상수	-3.936***	.469	-2.248***	.400	-1.377***	.346	-.580	.314
Model $X^2$	926.343***		1663.299***		1231.205***		3046.754***	
Nagelkerke $R^2$	.2777		.337		.417		.444	

\* p <.05, \*\* p <.01, \*\*\* p <.001

[논문 접수일 : 2008년 9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01일]